

#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삼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삼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 마태 12:20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 기후정의 기도회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 수라갯벌

#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기도회

## "정의가 이길 때까지"

인도 | 집행위원장 임준형

들이쉬는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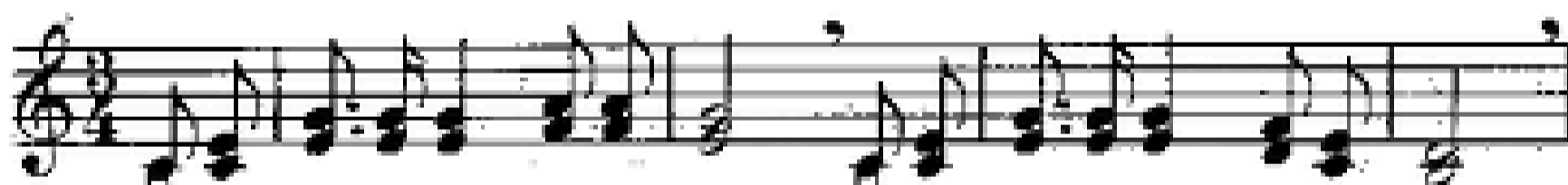
다함께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마태 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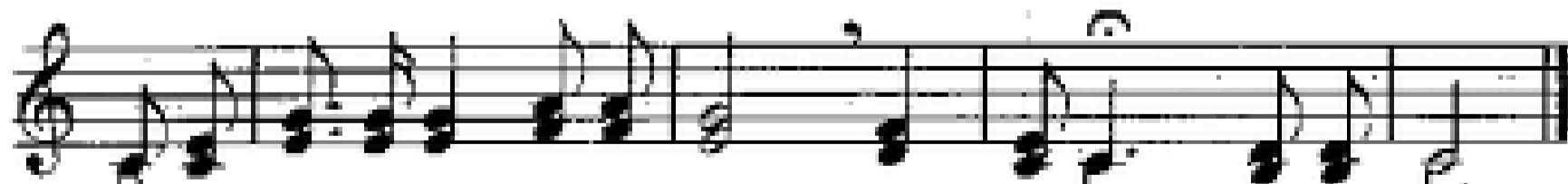
찬양

여기 오소서

다함께



1. 여기 오소서 내주여 여기 오소서 내주여  
2. 우는 자 위해 오소서 우는 자 위해 오소서  
3. 눌린 자 위해 오소서 눌린 자 위해 오소서



여기 오소서 내주여 오 주여 오소서  
우는 자 위해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눌린 자 위해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하나님,  
너른 땅, 들판 곳곳에 숨구멍이 있었습니다.  
지천으로 활력이 넘쳤고,  
곳곳이 풍성한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조개와 게들, 물고기와 새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콘크리트 벽이 들어서고,  
물의 오고 감을 막았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생명은 죽어갔습니다.  
매립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 갈 곳을 잃은 생명들이  
허다했습니다.  
이곳에선 사람마저 길을 잃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죽음의 땅 위에 자신들의 죄악을 덮듯 흙을 덮고,  
그 위에 세계의 청소년을 불러모아  
잼버리라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열흘 남짓의 행사를 위해 벌어진  
생태학살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준비하는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시다.  
행사에서 일어난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잼버리가 아닌 잼버리로 인해  
용도 변경된 토지만이 관심사였고,  
매립을 통해 개발로 이어지는 이익에만 골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고통에 눈을 감았고,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외침 소리에 귀를 막았고, 비명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번영과 성장, 풍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역의 자랑거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산업을 위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강탈한 땅 위에서 기쁨을 누리길 바랐고,  
타인의 고통 위에서 행복을 누리길 바랐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땅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의 경계를 회복하시고,  
생명의 물결이 다시 메마른 땅을 적시며,  
그 속에 생명이 다시 움 틔우게 하여주십시오.  
지천으로 활력 넘치고,  
곳곳이 풍성한 생명의 땅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강탈한 땅에서의 기쁨과  
타인의 고통 위에서 누리는 행복 대신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 24:1-5**

**살림 유태호**

1.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2. 분명히 주님께서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3.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4.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5.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찬양

참 아름다워라

다함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말씀의 증언

갯벌의 시간

들녘교회 이세우

현장의 증언

전북녹색연합 김지은

중보의 기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윤동혁

군산YWCA 우원경

집행위원장 황준의

내쉬는 숨



다함께

갯벌과 숨쉬는 하나님

도요물떼새, 금개구리, 맹꽁이, 독수리, 흰발농게, 수달, 삼, 물수리, 큰말뚝가리, 흰죽지수리, 향라머리검독수리, 수리부엉이, 잣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흰꼬리수리, 민물가마우지, 저어새, **자신의 이름** 을 돌보시는 하나님

갯벌의 숨 안에, 우리의 숨결 속에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속에 우리 살아 숨쉬게 하소서

파송의 기도

예수살기 리미일